

보 도 해 명 자 료

('19. 6. 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전기요금 할인 소요재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은
확정된 바 없으며, 필수사용공제 폐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
(동아일보, 6.2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◇ 전기요금 할인 소요재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은 확정된 바
없으며, 필수사용공제 폐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

◇ 6월 20일 동아일보 <상장사에 무리한 요금인하 요구...결국 세금
으로 전기료 깎아줘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☐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
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, 내년 하반기에 필수사용량 보장
공제 폐지도 추진하기로 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
- ☐ 전기요금 할인 소요재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은 확정된
바 없으며, 필수사용공제 폐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

※ 문의: 전력시장과 박찬기 과장/하원석 사무관 (044-203-5173)